



FUND ONLINE KOREA

September 2014

2014 은퇴전략포럼 '100세시대, 노후자산 패러다임을 바꿔라'

노후 난민 벗어나기 투자 마스터 플랜

차 문 현
펀드온라인코리아 대표

● 차문현

펀드온라인코리아 대표이사

한성대 경영학 박사
고려대 MBA

주요 경력 ●

- 우리자산운용 대표이사
- 유리자산운용 대표이사
- 우리투자증권 상무
- 부산은행/동화은행 지점장

저서 및 논문 ●

- 긍정으로 턴어라운드하라 (21세기복스)
- 우리나라 공모펀드의 성과평가와 펀드 유형별 투자형태에 관한 연구 (한성대)
- 우리나라 액티브 펀드와 인덱스 펀드의 실증분석 (대한경영학회)
-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자산운용시장 발전 방안 (한국자본시장연구원)



FUND ONLINE KOREA



목차

- I. 노후 난민 시대가 온다
- II. 잠자는 연금자산을 깨워라
- III. 성공하는 노후 투자 전략

A group of elderly people, including men and women, are sitting on a bench outdoors. They are dressed in warm, winter clothing like jackets and hats. Some are using walking sticks. The background shows a dense thicket of dry, brown bushes. A semi-transparent dark box is overlaid across the middle of the image, containing white Korean text.

1. 노후 난민 시대가 온다

150세 시대가 열린다?



150세

생명공학의 발전, 늘어나는 수명



150세 시대가 열린다?

150세시대 열린다



오스테드 (텍사스대교수)
150세 인간이 출현할 것이라고 주장.

VS

프랑스 자카르마 할머니 122년 164일의



올산스키 (일리노대교수)
150세 인간이 출현하지 못한다 주장.



150세시대 불가능

150세 시대, 어떻게 달라질까?

- ✓ 성인 청소년의 등장
- ✓ 소니아 애리슨 (미래학자) 150세 시대의 서막이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
-HOW THE COMING AGE OF LONGEVITY WILL CHANGE EVERYTHING, FROM CAREERS AND RELATIONSHIPS TO FAMILY AND FAITH, SONIA ARRISON
- ✓ 가족의 진화 :배우자, 동거인, 손자뻘 자녀, 부모뻘 형제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미래가 펼쳐진다



빠른 고령화, 증가하는 부양 부담

- ✓ 고령자(65세이상)비중 12.2%, 2030년 4명중 1명 꼴
- ✓ 노인부양비 16.1, 생산 가능 인구 6명 고령자 1명 부양
- 노령화지수,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자 83명 (2017'초과전망)

고령자 인구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2013년 고령자통계

노년 부양비와 노령화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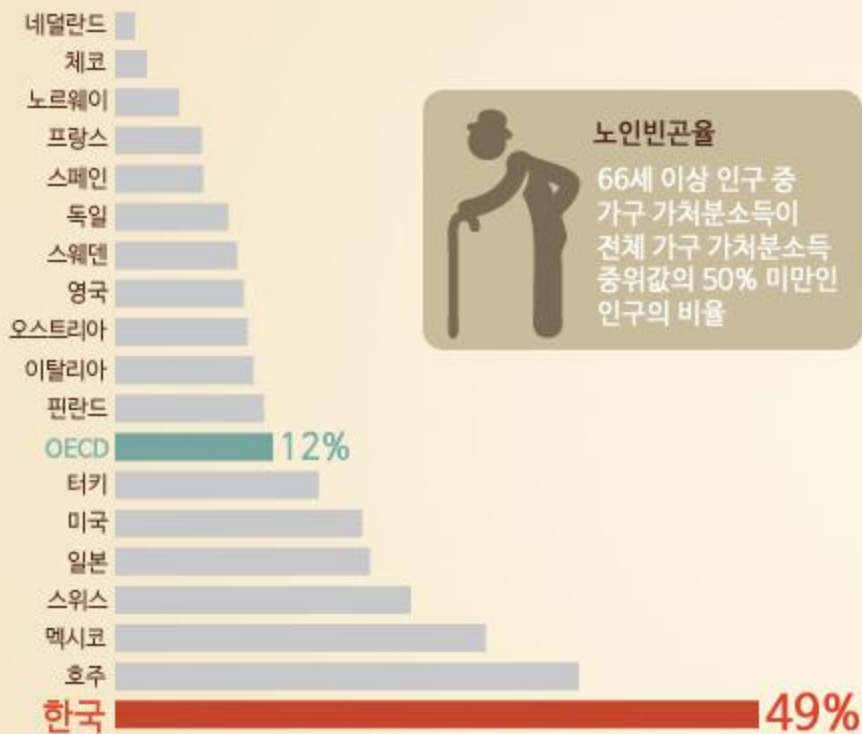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3년 고령자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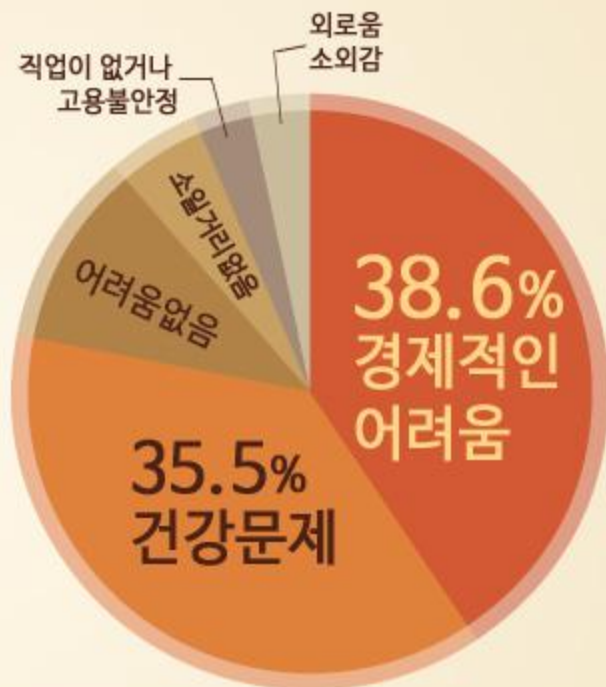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

- ✓ 노인 빈곤율 49%로 OECD 평균(12%)의 4배 높은 수준
 - 호주 멕시코 스위스 등이 20% 이상, 네덜란드 헝가리 체코 등은 2.5% 미만
- ✓ 노후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혀

OECD 국가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2011년)



고령자가 경험하는 어려움 (복수응답)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3

고령가구의 소득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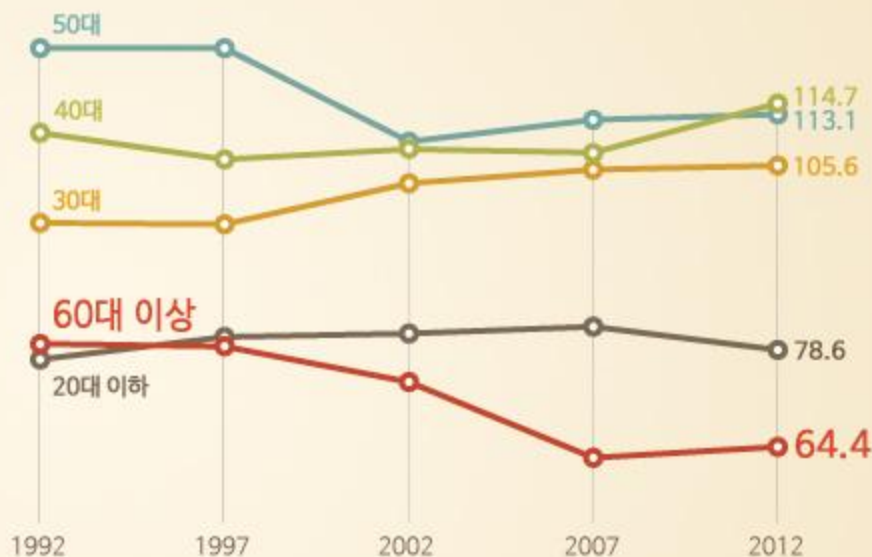
- ✓ 고령가구 월평균 소득 279만원, 전체 가구 평균의 66.5% 수준
- 가계지출은 203만원, 전체 평균의 62.7% 수준
- ✓ 고령가구의 전체 가구 대비 소득비율 지속 하락, 가장 낮은 수준

고령가구 월평균 소득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4년 2/4분기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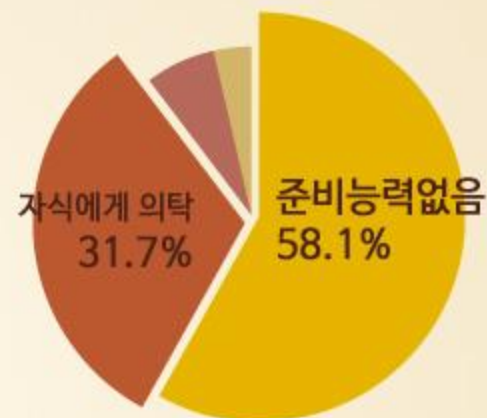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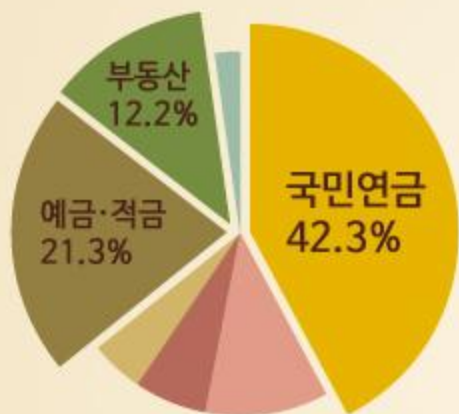


1. 소득비 : 각 연도 전체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연령집단의 소득비
2. 1인 가구 통계는 2006년 이후부터 제공되므로 시계열적 일관성을 위해 제외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부족한 노후 준비와 경제적 부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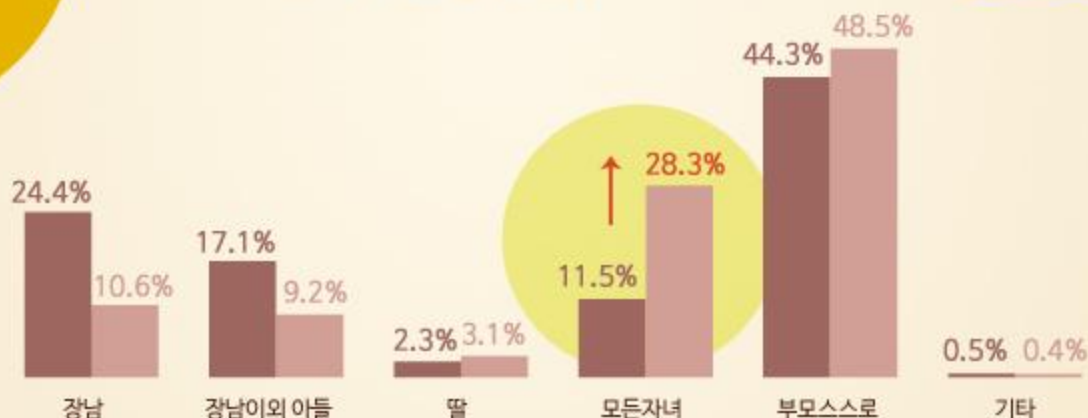
- ☑ 고령자 중 노후 준비를 하지 않음 48.4% 수준, 자녀에게 의탁 31.7%
- 노후 준비, 국민연금 예·적금 부동산 운용 順
- ☑ 자녀의 경제적 부양 비율 감소, 아들(장남) ↓, 모든 자녀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3

경제적 부양 인식변화

2002년
2012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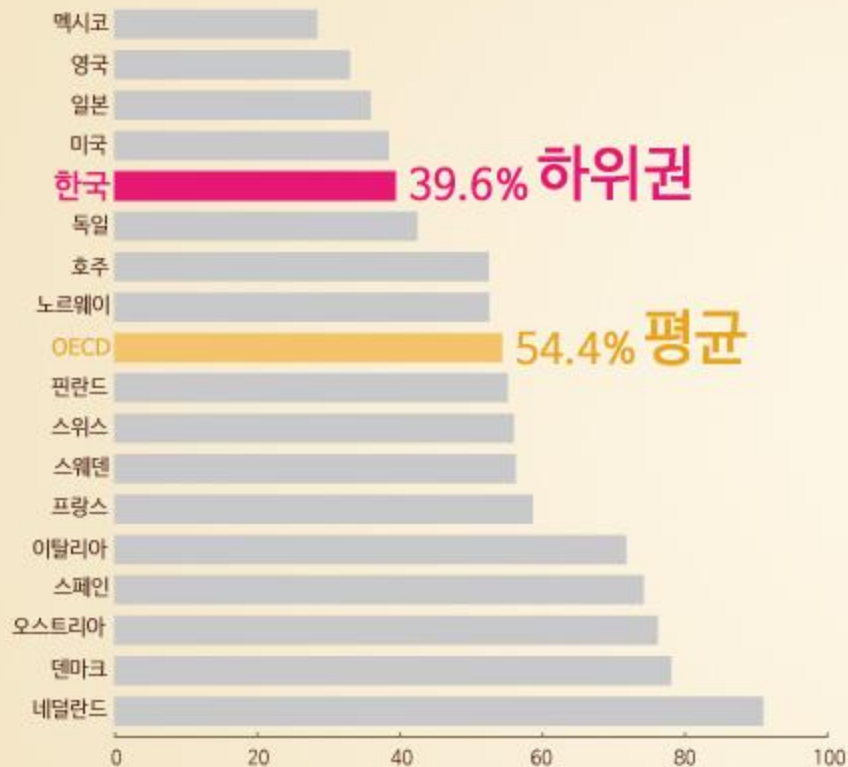
A close-up photograph of a desk with various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items. In the foreground, a blue and silver calculator is partially visible. Behind it, a newspaper or magazine with the word 'MONEY' in large blue letters is spread out. The text '176 TIMES TUESDAY AUGUST 9, 2005' is visible below the title. To the right, a pair of glasses with a wooden temple and a blue pen are resting on the papers. The background shows more papers and documents, some with charts and graphs. The overall scene suggests a professional or financial workspace.

II. 잠자는 연금자산을 깨워라

연금 없는 노후, 근로소득에 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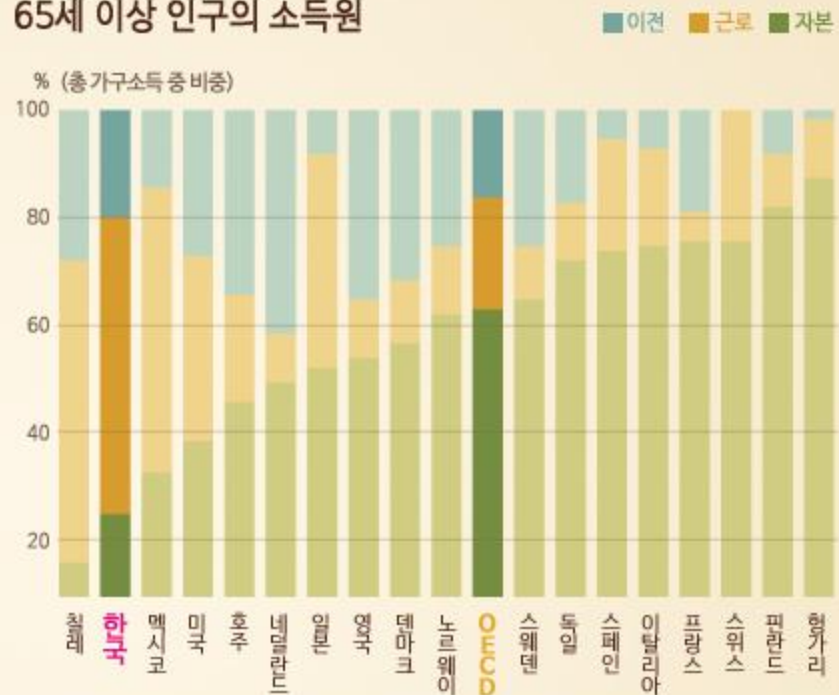
- ✓ 연금소득대체율 39.6%, OECD국가 중 하위권
 - 멕시코와 영국, 현재 소득의 3분의 1수준, 반면 네덜란드는 90% 수준
- ✓ 전체 노후 소득 중 근로 소득 60% 초과, 나이 들어도 계속 일해야

연금소득대체율



자료 : OECD, 2013, Pension at a glance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원



근로소득은 소득(고용 소득)과 자영업 소득을 둘 다 포함하며, 자본은 비연금성 저축의 수익률을 통한 소득뿐 아니라 사적연금을 포함

자료 : OECD, 2013, Pension at a glance

낮은 연금 가입률, 제 역할 못하는 퇴직연금

- ✓ 낮은 사적연금 가입률, 퇴직연금은 영국의 절반 이하
 - 공적 사적 연금 중 어떤 것도 가입하지 않은 '연금 미가입자'가 41.9%에 달함(2012)
- ✓ 2005년 퇴직연금 도입됐으나 연금수령 0.8%, 소득대체율 12.5%

주요국 사적 연금 가입률 비교

	영국	미국	독일	한국
퇴직연금	49.1%	32.8%	32.2%	18.8%
개인연금	18.1%	24.7%	29.9%	12.2%
합 계	67.2%	57.5%	62.1%	31%

퇴직급여 수령실태

연금 수령
수급자 2.9%
(금액 0.8%)

일시금 수령
수급자 97.1%
(금액 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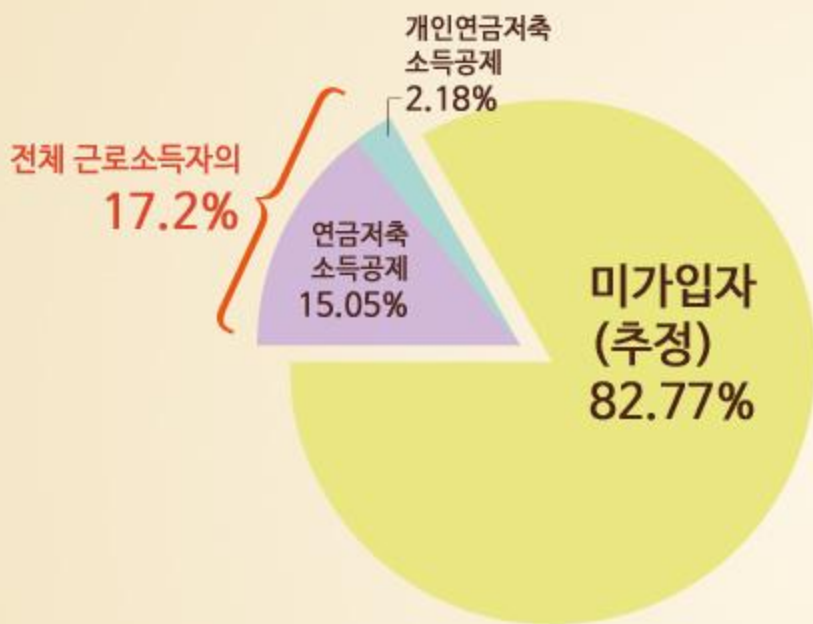
자료 : OECD, 2011

자료 : 금융감독원, 2014년 2/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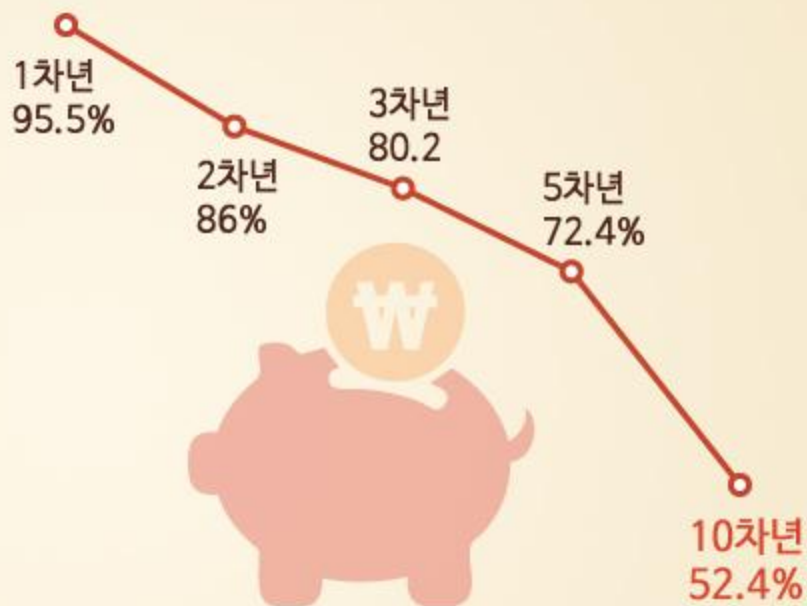
개인연금저축 낮은 가입률과 유지율

- ✓ 연금저축상품(세제혜택) 가입자는 전체 근로자의 17.2%에 불과
- 연말 정산자 1576만명 중 연금저축 소득공제 근로자 271만명
- ✓ 연금저축 10년차 계약 유지는 절반 수준, 중도해지가 많음

연금저축 가입자 현황



연금저축 경과년도별 계약유지율



자료: 국세청 '2011년 국세통계연보'

자료: 금융위원회, 2014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상품에서 방치

- ✓ 확정급여형 (DB) 절대적 높은 수준, 최근 확정기여형(DC) 증가 추세
-2014년 6월 말, DB 69.1%, DC 21.7%
- ✓ 적립금 운용의 원리금 보장 비중, 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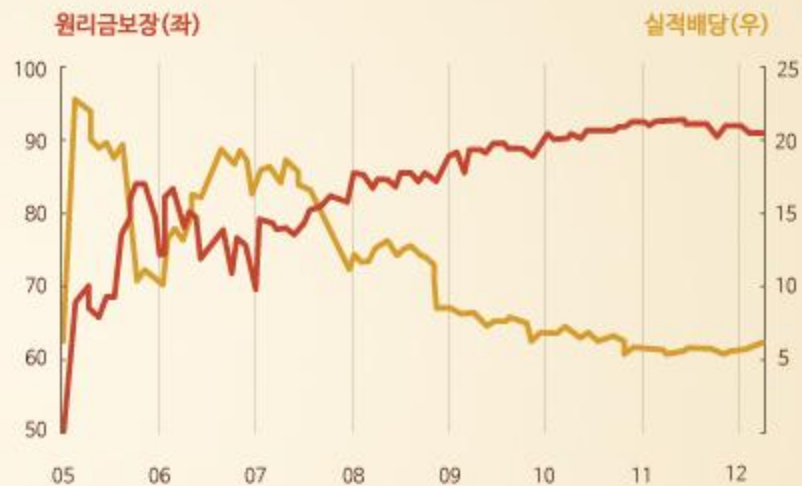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참고 :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계인퇴직계좌

자료 : 금융감독원, 현대증권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현황



*참고 : 원리금보장-예적금, 국공채, 금리형 보험상품, 실적배당-실적배당형 보험상품, 금융투자상품 (주식, 펀드 등)

자료 : 금융감독원, 현대증권

연금저축, 보험 비중 압도적...수익률 저하

- ☑ 생보사 56.1%, 손보사 21.6%, 은행 16%, 증권사 6.3% 順
- ☑ 최근 10년 누적성과 32~42%대, 보수적 자산운용으로 低성과
 - 원금보장형 상품 연금저축보험과 신탁은 안정적 운용, 수수료 선취 등으로 수익률 저하 문제 지적

연금저축 적립금 연도별 권역별 추이

구분	2008.12 적립금	2012.12 적립금	비중
생명보험	228,365억 원	429,950억 원	56.1%
손해보험	70,568억 원	165,162억 원	21.6%
은행(신탁)	110,140억 원	122,285억 원	16%
자산운용사	22,898억 원	48,474억 원	6.3%
기타	30,796억 원	22,246억 원	
총계	462,767억 원	788,117억 원	

연금저축의 월평균 수익률

상품구분		월 평균수익률 (표준편차)
채권형	은행	0.35 (0.28)
	자산운용사	0.35 (0.38)
금리연동형	생보사	0.33 (0.04)
	손보사	0.27 (0.03)
은행 안정형		0.33 (0.47)
자산운용사 주식형		1.02 (5.87)
자산운용사 혼합형		0.82 (3.34)

*농협공제를 기타로 집계하여 있으나, 농명생명보험 설립으로 생명보험에 포함 (47,681억 원)

자료: 금융감독원

*각 상품 유형 별로 계산한 10년 (2002. 7. 1 ~ 2012. 6. 30)간 월 평균 수익률(120개월)표준편차

자료: 금융감독원

원금보장형 연금상품의 금리 하락 지속

- ☑ DC 적립금 중 78.8% 정기예금 등에 투자, 2.6%까지 금리 하락
- ☑ 보험사 연금 대부분 금리연동형, 공시이율 2.8%까지 하락
 - 최저보증금리 있지만 덩달아 하락세, 올들어 1.5% 수준

퇴직연금(DC/IRP) 정기예금 금리 추이



자료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금 저축 보험 공시 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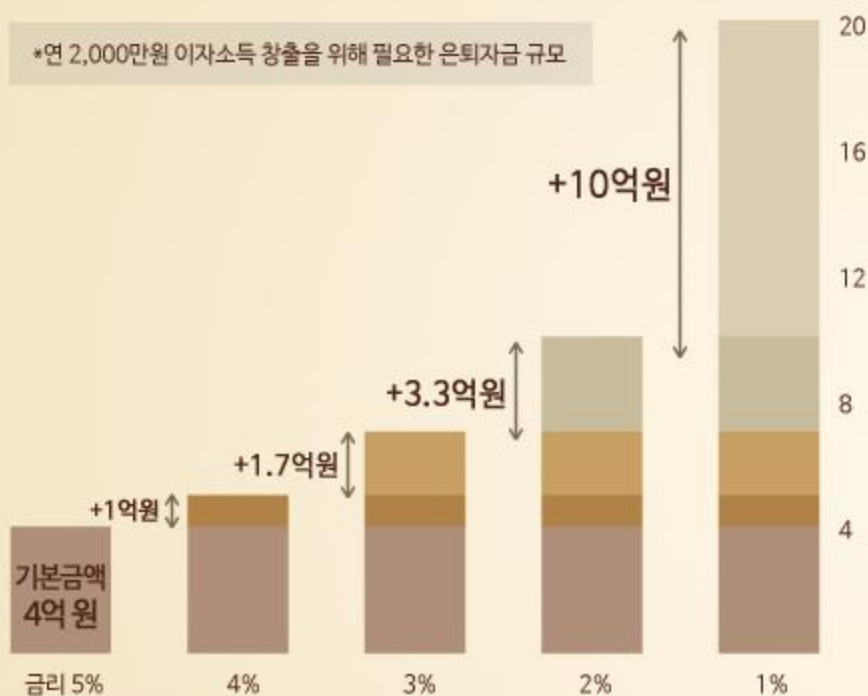


자료 : 보험개발원

금리 하락으로 필요 은퇴자금 급격히 증가

- ☑ 은퇴 후 연간 2,000만원 이자로 생활하고자 할 경우 금리 5%일 때는 4억원의 원금 필요, 4% 5억원, 3% 7억원, 2% 10억원 필요
- ☑ 3% 이하 구간에서 금리 1% 하락시 필요원금 50% 이상 급격 증가

금리 1% 하락 시 추가로 필요한 은퇴자금



자료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금리 하락 시 필요 은퇴자금 변화율

기준금리	금리하락폭		
	1%p	0.5%p	0.1%p
2.0%	100%	33.3%	5.3%
3.0%	50.0%	20.0%	3.4%
4.0%	33.3%	14.3%	2.6%
5.0%	25.0%	11.1%	2.0%
10.0%	11.1%	5.3%	1.0%

*기준금리에서 해당 금리가 하락할 때 추가로 필요한 원금 비율

자료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The background features two miniature figures in business suits shaking hands. Below them is a line graph with two lines, one red and one blue, both showing an overall upward trend with some fluctuations. The graph is set against a light gray background with faint grid lines.

Ⅲ. 성공하는 노후 투자 전략

원금보장형에서 벗어나 투자를 늘려라

- ✓ 안전 자산 100% 보다 주식과 분산 투자시 더 효율적 운영 가능
- ✓ 퇴직연금 주식투자 비중 70%까지 늘리니 안정성 오히려 높음
 - DC형과 IRP의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 70%까지 증가 예정 (2015년부터)

주식/채권 분산 투자시 과거 20년 수익률 (한국)

혼합 비율	(-)수익률 평균	(+)수익률 평균	양의수익률 기간
채권 100%	-	6.5%	20년
주식20% 채권80%	-	7.4%	20년
주식40% 채권60%	-7.2%	12.1%	16년
주식60% 채권40%	-9.8%	19.3%	13년
주식80% 채권20%	-16.5%	24.3%	13년
주식100%	-23.2%	29.2%	13년

자산배분 비중따른 혼합형펀드 적립식10년 성과

주식투자비중		40%	50%	60%	70%	...
누적	최대값	69.3%			95.0%	
	평균	48.6%	투자비중 확대			58.2%
	최소값	34.6%			36.6%	
연평균 복리	최대값	5.4%	수익률증가 안정성증가			6.9%
	평균	4.0%	적립투자			4.6%
	최소값	3.0%			3.2%	

[기본가정]

*투자 대상 기간 : 2000년 12월 ~ 2014년 8월 (13년 8개월)

*펀드 편입 자산 : 주식(KOSPI지수), 채권(KIS종합채권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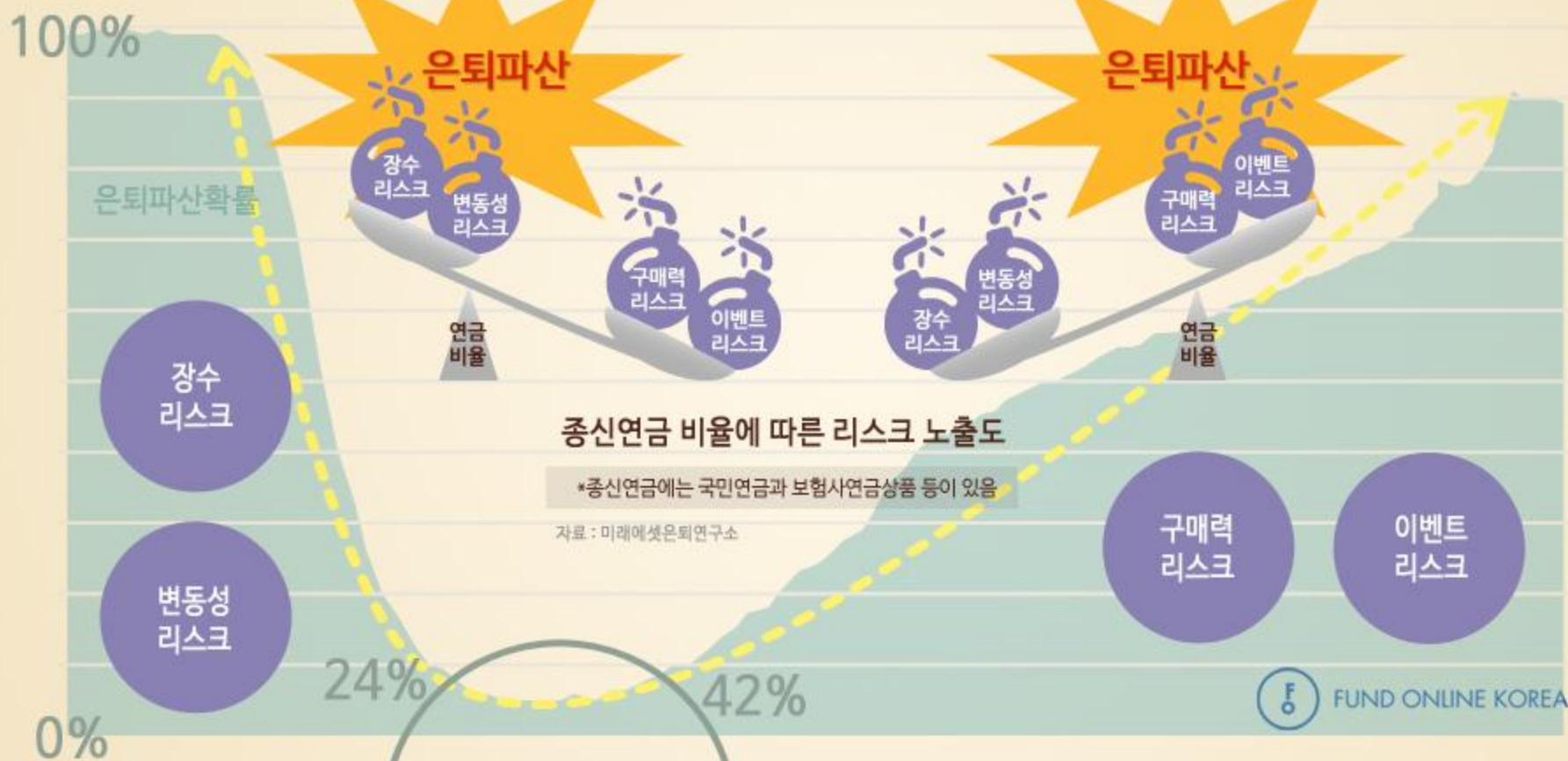
*펀드 내 주식자산 비중의 변동 허용 폭 : 10%

*기준 : 주식 - KOSPI주가지수 / 채권-국고채3년 금리
 *(+)수익률 평균 : (+)수익률 기록한 년도의 평균수익률
 *(-)수익률 평균 : (-)수익률 기록한 년도의 평균수익률

연금자산, 적절하게 분산 하라

- ☑ 종신 지급 때문에 연금보험 상품 선호 추세, 하지만 구매력·이벤트 리스크 노출
- ☑ 종신연금 비중 24~42% 구간이 은퇴 파산 확률 낮아
 - 종신연금 이외 투자형 상품 등에 배분해 구매력 및 이벤트 리스크에 대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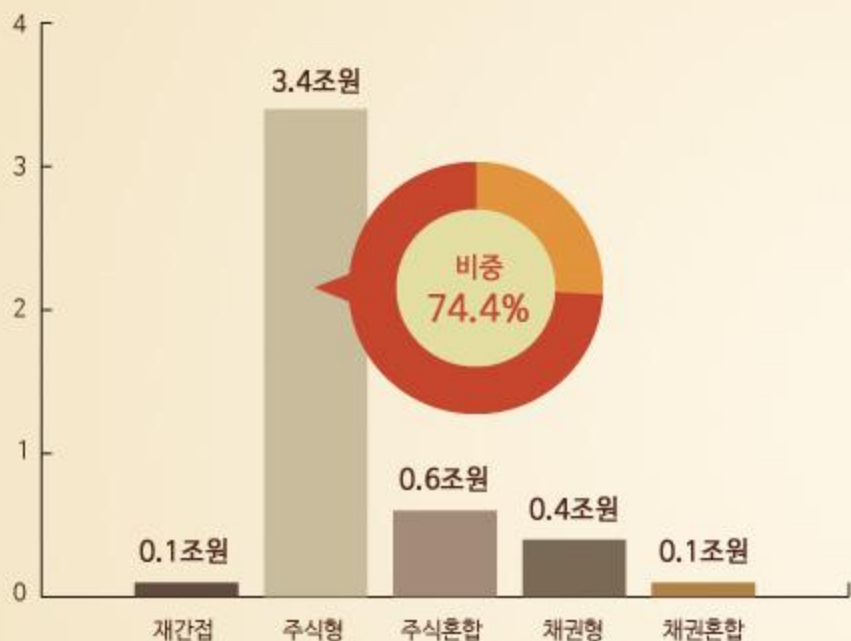
종신연금 비율에 따른 은퇴 파산 확률



연금저축펀드, 국내 주식에만 치우쳐

- ☑ 연금저축 펀드만 봐도 주식형이 3.4조원으로 전체에서 74.4% 차지
- ☑ 국내와 해외의 경우 국내 자산에만 92.9%로 쏠림 현상 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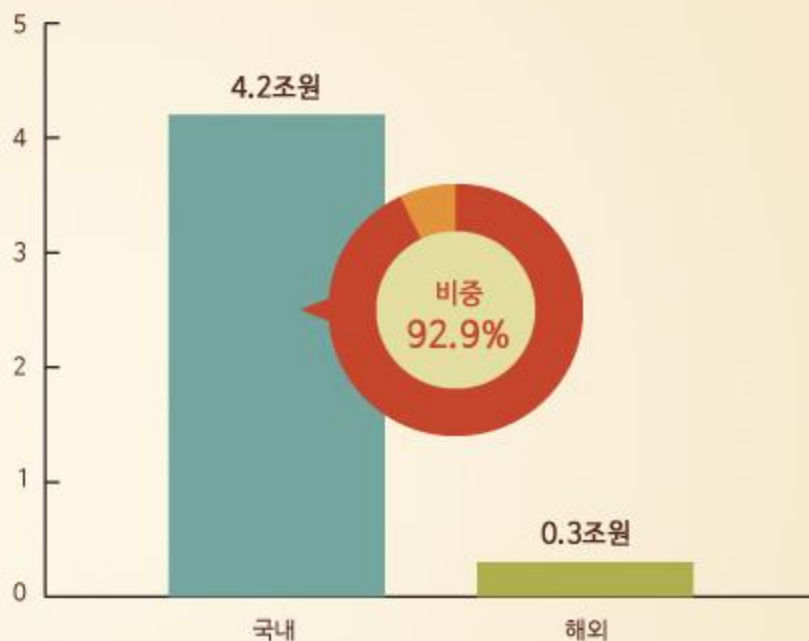
연금저축펀드의 유형별 설정액



*참고: 공모펀드
*기준일: 2013.12.03

자료: FN가이드, 현대증권

연금저축펀드의 투자지역별 설정액



*참고: 공모펀드
*기준일: 2013.12.03

자료: FN가이드, 현대증권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한국경제

- ☑ GDP성장률, 1970년대 평균 10.3% 였으나 2010년대 3.8%
- ☑ 주식시장 기대수익률 과거 10%이상이나 2010년 들어 8% 이하
- 주식 기대수익률을 배당성장모형으로 가정

한국 GDP성장률



한국 주식시장의 기대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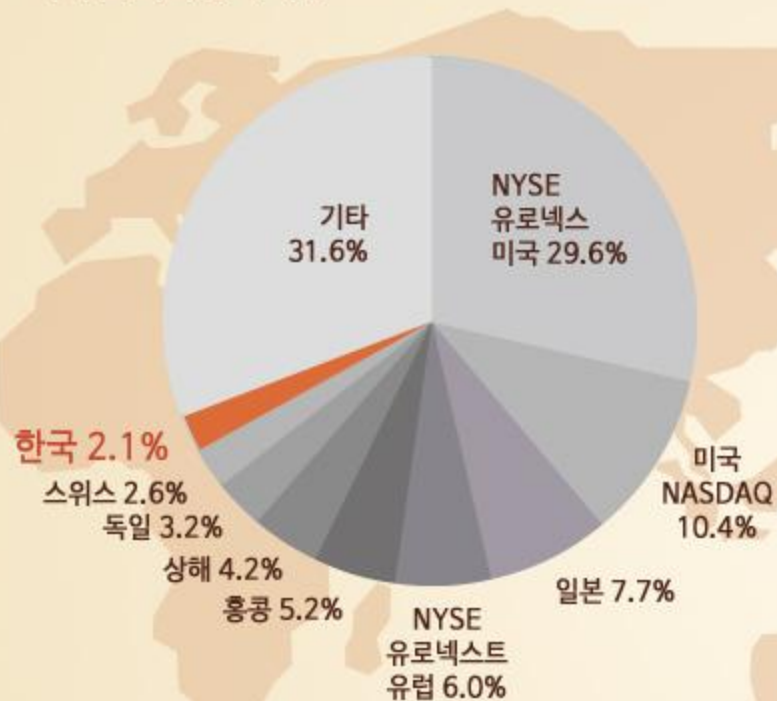
자료 : OECD, 1971~2015년

자료 : 블룸버그, OECD 1996~2013년

연금투자, 글로벌 자산배분하라

- ✓ 국내 주식시장 비중은 전세계에서 2.1%에 불과, 새로운 기회를 위해 해외 투자 필요
- ✓ 국내와 해외주식 분산투자하면 기대수익률 ↑ 위험 ↓

국가별 시가총액 비중



자료: 세계증권거래소연맹, 2014.01, USD 기준

글로벌 자산배분 (2009.03~2014.02)

구분	연 수익률	연 표준편차
KOSPI 100%	14.9%	19.9%
KOSPI 50% + MSCI 북미 50%	17.9%	16.9%
한국펀드시장 평균투자 (한국 67% + 아시아 20% + 북미 10% + 유럽 3%)	19.4% 수익률증가	16.3% 위험감소

*한국 펀드시장 평균투자는 최근 5년 주식형 펀드 국내외 투자 비중 평균으로 투자했다고 가정할 경우의 수익률과 위험

자료: 데이터스트림, 모닝스타, 금융투자협회, 한국투자증권

장기·분산·정기 투자하라

- ✓ 국가마다 차별적인 증시흐름, 여러 지역과 국가 분산 투자하면 위험 줄일 수 있음
- ✓ 연금 성공 투자의 3원칙은 장기, 분산, 정기 투자임

연도별 수익률 상위 국가 (지수상승률)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영국(-32.8)	인도(81.0)	한국(21.9)	다우(5.5)	독일(29.1)	일본(56.7)
다우(-33.8)	중국(80.0)	인도(17.4)	나스닥(-1.8)	인도(25.7)	나스닥(38.3)
스위스(-34.8)	이머징(58.6)	나스닥(16.9)	영국(-6.7)	일본(22.9)	다우(26.5)
선진국(-40.1)	홍콩(52.0)	독일(16.1)	선진국(-7.6)	홍콩(22.9)	선진국(26.3)
독일(-40.4)	한국(49.7)	이머징(11.7)	스위스(-7.8)	나스닥(15.9)	독일(25.5)
나스닥(-40.5)	나스닥(43.9)	다우(11.0)	한국(-11.0)	스위스(14.9)	스페인(22.7)
스페인(-40.6)	호주(33.4)	영국(10.9)	스페인(-14.6)	이머징(13.9)	스위스(20.2)
한국(-40.7)	스페인(27.2)	선진국(7.8)	독일(-14.7)	호주(13.5)	영국(16.7)
일본(-42.1)	영국(25.0)	홍콩(5.3)	이머징(-14.9)	선진국(13.1)	호주(14.8)
호주(-43.0)	독일(23.8)	호주(-0.7)	호주(-15.2)	한국(9.4)	인도(9.0)
이머징(-47.2)	선진국(22.8)	스위스(-1.7)	일본(-17.3)	영국(8.2)	홍콩(2.9)
홍콩(-48.3)	일본(19.0)	일본(-3.0)	홍콩(-20.0)	다우(7.3)	이머징(0.9)
인도(-52.4)	다우(18.8)	중국(-14.3)	중국(-21.7)	중국(3.2)	한국(0.7)
상해(-65.4)	스위스(18.3)	스페인(-19.2)	인도(-24.6)	스페인(-3.8)	중국(-6.7)

연금 성공 투자의 3원칙



효율적인 노후 준비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온라인 연금 상품 활성화

- 바쁜 직장인도 금융회사의 지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연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채널 활성화 필요
- 온라인 채널은 판매 지점 운영비가 없어 비용이 저렴하므로 연금상품의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금융실명제 개선 : 대면확인 해소



☑ 연금 상품 이전이 실질적으로 원활하도록 개선 필요

- 보다 효율적인 연금 자산 운용을 위해 다른 상품이나 금융회사로 편리하게 이전할 수 있어야 함

☑ 베이비붐 세대, 짧은 노후 준비 기간을 위한 세제 혜택 필요

- 미국 50대 이상 중장년층, 세금 혜택 및 보조금 늘린 '캐치업 플랜' 운영

감사합니다

차문현
펀드온라인코리아 대표

